



[빅히트IPO] '로도 공모'에 63조 군침 오늘부터 일반 청약 03



Economy

코스피	2327.89 (0.00)	코스닥	848.15 (0.00)
금리 (미국 3년)	0.846 (+0.003)	환율 (원/달러)	1169.50 (-4.10) (9.29)

“한때 생존걱정” 기업들, 코로나 적응끝났나... 실적 급반등

(3분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장기화 여파에도 국내 기업들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상반기 기준 최근 10년래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반사이익을 얻은 일부 업종은 호실적을 거뒀지만, 철강·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체들의 이익은 급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과 제품을 내세우며 3분기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자업계 실적 '맑음'

4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0조원 안팎이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한달전 9조27억원에서 현재 9조9057억으로 9.7% 상승했다. 스마트폰 사업 호조로 3분기 영업이익 10조원 돌파 전망까지 나온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썼다웃고 톡다운 여파로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갤럭시 S20 흥행에 실패했다. 하



지난 2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의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 장기화에도 실적 기대감 삼전,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10조 반도체·가전·스마트폰 등 호조

LG도 TV·신가전 판매 증가로 영업익 전분기보다 80% 늘 듯

현대차 '신차 효과' 1조 회복 전망

지만 최근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선 데다 미중무역분쟁과 인도와 중국 갈등으로 반사 이익까지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Z폴드2와 갤럭시Z플립

등 신제품의 성공과 함께 출하가 유지와 원가 관리로 수익성 향상도 이뤄진다는 평가다.

가전 사업인 CE 부문도 마찬가지다. IM(휴대폰부문)과 마찬가지로 4년만 영업익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이순학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의 호조로 상반기까지 유통 재고가 거의 다 소진된 상황에서 화웨이 제재까지 겹치면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실적과 가전, TV도 선방할 전망”이라고 예상



포스코 광양제철소 새단장 마친 3고로.

했다.

LG전자도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8000억~9000억원대에 형성되면서 전분기인 2분기(4954억원) 대비 70~80% 증가할 전망이다. LG전자는 7월과 8월 올레드 TV를 각각 13만대, 16만대씩 판매하며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시키는데 성공했다.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비로소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다. TV와 생활가전의 투톱이 여전히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가운데 스마트폰과 전자부품의 적자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건조기와 스타일러 등 신가전

판매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등 건강·위생관리 가전 제품들도 판매가 늘어나면서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LG디스플레이도 7분기만에 흑자 전환이 유력하다. 대형 올레드 패널이 꾸준히 판매를 높이고 있는 데다가, 소형 OLED 패널 공급까지 시작한 영향이다.

◆바닥찍은 車·철강업계 반등 예고

현대자동차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안정적인 내수 시장과 신차 효과 등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것은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만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는 1조138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저 효과가 반영된 결과지만, 믹스개선(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과 가동률 향상 등도 수익성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면에 계속)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코로나19 입원 병원에서 집무 중인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중인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월터 리드 군 병원 회의실에서 서

/연합뉴스

“트럼프, 코로나 악화면 금융시장 충격 가능성”

한은, 연휴기간 국내외 시장 점검 안전자산 선호 등 상황 예의주시

증상이 관건이며, 증상이 악화될 경우 금융시장 충격이 급격히 확대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증상에 따라 금융시장이 출렁일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등도 국제 금융시장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점검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도이체뱅크(DB)는 “대통령의 나이와 체형을 감안하면 병원 입원 확률이 30~40%며, 입원할 경우 고령 환자들의 높은 치명률 등이 부각되며 시장불안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4일 오후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연휴기간 중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이는 명백히 안전자산 선호(risk-off) 사건으로 대통령의 증상을 1~2주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해 미리 잡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관련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는 후문이다. 한은은 연휴기간 중 본부외자운용원과 주요 금융중심지 소재 국외사무소(뉴욕·런던·프랑크푸르트·동경)가 연계해 국제금융시장과 한국 관련 지표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치료법 개선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위험자산 투매 등 심각한 시장불안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대선과 추가 경기부양책 관련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증상에 따라 시장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는 만큼 진행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씨티는 “과거 케네디 대통령 암살(1963년 11월 22일)과 레이건 대통령 총격 사건(1981년 3월 30일) 모두 주식시장은 처음에 안전자산 선호(risk-off) 반응을 보였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4세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한다. 향후 1~2주간의

한편 금융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을 반영하긴 했지만 변동폭은 제한됐다.

지난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장 초반 금리와 주가는 내리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2300명, 상온노출 의심 독감백신 맞았다

사용 중단 결정에도 지침 위반 관리청, 계약해지 등 조치 예고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일주일만에 2300명을 훌쩍 넘어섰다. 보건당국은 당초 문제가 된 백신을 맞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지만 일주일만에 접종자가 크게 늘면서 예방접종 사업 부실 관리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 “조사 중인 정부 조달물량 접종 건수는 2일 기준 2303건(명)”이라고 밝혔다. 상온 노출 의심 접종자는 전일 2290명으로 2000명을 넘어선 후 하루 만에 다시 13명 늘어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달 21일 무료 접

종 물량을 공급하던 ‘신성약품’이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상온 노출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무료 접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하루 뒤인 지난 달 22일 질병관리청은 문제 백신의 접종자가 한명도 없다고 밝혔지만 백신 접종자는 지난 달 25일 이후 105명으로 집계된 이후 연일 늘면서 일주일만에 20배로 급증했다. 상온 노출이 의심돼 사용이 중단된 백신 물량은 총 578만명분이다.

접종자가 나온 지역은 강원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다. 경기도가 6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361명, 전북 326명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선 149명이 접종했다. 질병관리청은 강원과 울산에서도 지자체와 의료기관 등이 접종 사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 달 21일 까지 접종받은 사람이 141개 의료기관에 걸쳐 1597명(69.7%)으로 가장 많았다. 백신 사용 중단 결정이 긴급하게 내려지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22일 당일(450명·19.7%)을 제외한 나머지 접종 사례(1840명분)의 물량은 예방접종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다.

질병관리청은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을 확인한 뒤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며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